

보도자료



보도일	2013. 8. 29(목)		
배포일	2013. 8. 29(목)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 (880-5054, 9072)
담당부서	사무국 총무과 교무처 학사과	문의	행사진행: 총무과(880-5091) 학위수여: 학사과(880-5032)

제 목: 서울대학교, 제67회 후기 학위수여식

오연천 총장 “자기성찰과 헌신, 배려로 인간 본연의 가치 실현”

□ 서울대학교는 제67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2013년 8월 29일(목) 오전 10시~11시 30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한다. 학위수여식에는 오연천 총장, 전임 총장, 부총장(교육·기획·연구), 보직교수, 단과대학 학장 및 원장, 학과 및 학부 교수, 학부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오연천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인간존중의 정신을 사고와 행동에서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삼고 실천하며, 항상 겸손함을 실천하는 자세를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며 “어느곳에서 정진하든 인내와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고 소수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연천 총장은 “끊임없는 자기성찰, 헌신과 배려를 통해 인간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21세기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주역이 될 것”을 강조했다.

□ 올해 학위수여식에서는 중국 연변대 박영호 총장이 연사로 초청되어, 존중받는 리더상, 모교의 의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캠퍼스를 떠나는 졸업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박총장은 1982년 연변대 졸업 후 미국 루이스&

클라크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1999년 서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는 졸업생들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선도하는 리더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학위수여식 축사 연사로 박영호 총장을 초청하였다. 아울러, 러시아 출신 고려인 3세인 홍야나(국어국문학과)씨가 외국인 유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게 된다.

□ 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931명, 석사 998명, 박사 510명 등 총 2,439명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단과대학(원) 학위수여식은 이날 오후 각 대학별로 실시될 예정이다.

□ 제67회 학위수여식 주요 식순(2013. 8. 29)

- 10:00 식전 행사(SNU Ensemble)
- 10:30~11:30 학사보고, 학위수여식사(오연천 총장), 축사(임광수 총동창회장, 박영호 연변대 총장), 학위수여, 상장수여, 졸업생 대표 연설(국어국문학과 홍야나)

*** 학위수여식사(총장), 축사(연변대 박영호 총장)**

1. 2013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사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학업의 연마 끝에 영예로운 졸업을 맞게 된 데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주신 학부모님들께는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열정과 헌신으로 지도해주신 동료 교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대학의 울타리 안에서 전공분야의 지식을 쌓고, 훌륭한 논문을 써서 학문적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우정을 쌓으며 인격을 연마했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배양하면서 교양시민으로 성숙하였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미래의 진로를 모색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대학에서의 학창생활은 미래의 꿈을 향해 역량을 축적하고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스스로 여러분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능성을 열어나가는 현실은 언제나 제약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선택할 장래의 진로는 항상 밝고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의 졸업생들의 여정은 그러한 제약점을 극복하고 불확실성을 타개하는 끊임없는 자기실현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결코 두려움과 방관, 냉소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축적한 학문적 성취와 뿌리깊은 인본적 기반, 여기에 여러분의 패기와 도전정신이 더해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일관되게 취한다면, 머지않아 학창시절의 꿈에 다가설 것이며,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인도할 수 있는 역할에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불굴의 투혼과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가능해 보였던 민주주의와 눈부신 경제발전에 기여한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저는 인생의 선배로서 정든 교정을 떠나는 졸업생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간 존재의 경이로움을 잊지 않으면서 인간 존중의 정신을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에서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삼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물질주의와 경쟁으로 점철되

는 시장경제가 융성할수록 인간존중의 가치는 우리 공동체의 존립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욱 중요한 무형의 사회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쌓아온 여러분들이 인간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때, 우리의 존재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존중의 정신을 우선한다면, 자연스럽게 「더불어 함께 전진하는」건강한 공동체를 일구어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있고 내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각 분야에서 소임을 다하면서 배려와 나눔의 지혜를 실천한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품격있는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신이 이루어낸 성취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갖출 때, 참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항상 겸손함을 실천하는 자세를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자신이 존중받으려면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라는 말이 있듯이 겸손함은 자기 자신을 읽을 수 있는 첩경입니다. 예법 수준이 아니고 인간 존재와 삶의 본질적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것은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있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대학, 기업, 정부, 시민사회, 그 어느 곳에서 정진하든 여러분은 그곳에서 구심적 역할을 발휘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합니다.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되, 편가르기와 비난을 절제하면서 항상 구성원의 공동 목표와 보편적 가치를 도출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인내와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고 소수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가 고유의 전공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전공 영역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면서도, 인접학문이나 타 학문영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융합적 접근과 종합적 사고의 틀을 갖추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문영역이 고도화될수록 새로운 시각과 발상의 전환이 창조와 혁신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 유념하기를 기대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폭넓은 세계관을 살려나가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나라의 영토는 그 나라의 영토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문화적 가치가 전파되는 곳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영토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토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를 뛰어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로벌 소통능력을 키우고, 어느 곳이든 서울대학교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늘려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넬슨 만델라는 “교육은 세상을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학문의 전당인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눈앞의 이익에만 연연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성찰, 그리고 헌신과 배려를 통해 인간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리하여 21세기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주역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무궁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08. 29.

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2. 축사(박영호 연변대 총장)

존경하는 오연천 총장님,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과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에게 이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대학교에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다년간 간난신고를 겪으면서 어려운 학업을 훌륭히 마치고 대한민국의 최고학부이자 아시아 명문대인 서울대학교의 학위를 수여받게 된 졸업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대를 졸업한 중국의 조선족으로서, 현재 연변대학교 총장직을 맡고 있다는 신분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의 2,700개 대학교 총장들 중에서 서울대 졸업생이 저 하나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변대학교와 서울대학교는 모두 저의 모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저의 모교인 연변대와 서울대를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공산당이 실행한 소수민족 정책의 혜택으로 연변대학교는 1949년 4월에 중국에서 최초의 조선민족 대학교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21개의 단과대를 두고 있고 정규과정 학생 22,000여명(학부생 18,000여명, 대학원생 4,000여명) 평생교육과정 학생 18,000여명에 2,400여명의 교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 초창기에는 연변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중

국의 조선족으로 구성 되었는데,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연변대학교의 졸업생 수요가 급증하고 학생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기타 민족 학생들과 교직원을 받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학생수의 약 40%와 전체 교직원수의 약 80%가 조선족입니다.

연변대학교는 1949년에 설립된 이래, 중국 조선민족의 정치·경제·문화·교육·예술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건설에 중대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중국공산당이 실시한 소수민족정책이 고등교육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연변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변대학교는 10여만명의 훌륭한 민족인재를 양성하여 세인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아울러 자타가 공인하는 선명한 민족적 특색이 있는 지역 종합대학교로 부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반도간의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관계의 구축과 발전에 중국의 그 어느 대학교도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지난 세기말 연변대학교는 영광스럽게 중국 정부에서 21세기 세계 선진 수준의 대학으로 키워 갈 목적으로 선정한 100개 대학교의 행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변대학교는 21세기, 세계 선진 수준의 대학 행렬에 진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 수준의 대학으로 부상하려면 세계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동북아의 금삼각지대에 자리잡고 있는 연변대학교가 직면한 세계적인 과제는 바로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이 지역 여러나라들의 공동 번영과 발전에 유익한 지식을 창출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이끌어 나아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연변대는 이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해 나아 갈 것입니다.

연변대학교가 직면한 세계적인 과제는 세계 여러나라 대학들과의 협동과 협력으로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연변대학교는 우선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여러 대학들과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협동 -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지금까지 줄곧 연변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전 중한 양국의 공식 수교가 이루어지기 2개월 전에 이미 작고하신 김종운 서울대 총장님께서 연변대를 방문하시고 양교 간의 교류와 협력관계를 맺어 놓으셨습니다. 그 뒤로 이수성 전임 총장님과 정운찬 전임 총장님께서도 연변대를 다녀 가셨고 두 대학 간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돈독히 발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연천 총장님은 취임 직후 저와의 통화에서 서울대와 연변대의 협력 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 나아가자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수많은 서울대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연변대를 찾아 주셨고 저희들에게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연변대학교 도서관 서고 곳곳에는 서울대에서 기증한 도서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여명의 서울대 졸업생이 연변대 교수진에서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만 하더라도 서울대로부터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는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할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까지 해도 중국에는 행정학 박사과정이 없었습니다. 서울대는 저로 하여금 중국과 한반도간의 지속적인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일층 심사숙고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서울대는 저에게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는 명문대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지도교수이신 정용덕 교수님은 항상 저에게 참된 학자로서의 꿈을 키우고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열심히 지도해주셨습니다. 제가 서울대로부터 받은 이 모든 혜택이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서울대로부터 졸업식 축사를 부탁한다는 요청을 받고나서 저는 모교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으로 어떻게 모교에 보답해야 하는지를 다시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하는 과정에 여러개 모교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모교에 대한 공통된 기억이 있다면 바로 누군가 묘사한 것처럼 “모교란 들어서기 전에는 들어서지 못할까 하고 애간장을 태우다가도, 정작 들어서고 난 뒤에는 하루빨리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떠날 시간이 되면 하루이틀이라도 더 머물고 싶어했던 곳이요, 떠나고 난 뒤면 시간이 흐를수록 사무치게 그리워 지는 그런 곳” 입니다. 그렇게도 정이 깊은 곳인 만큼 누군가 말한 것처럼 모교를 놓고 동문끼리는 하루에도 몇번이고 나무람 하다가도 남들은 단 한마디도 허물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항상 모교를 부모님에 비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생명의 원천이요, 모교는 성장의 요람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선물하였고 모교는 우리들에게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와 지능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모교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부모님이 바라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곧 부모님께 대한 최상의 효도”라고 한다면, “모교가 바라는 그런 인간이 되어 가는 것이 곧 모교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교가 우리들에 대한 기대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바로 “언제 어디서나 가장 존중받는 인간이 되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언제 어디서나 가장 존중받는 인간”이란 바로 투철한 사명감과 무한한

책임의식을 갖추고 그 사명을 훌륭히 완수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조직내에서든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 그 조직의 리더가 됩니다. 그 어느 사회에서든 가장 존중받는 사람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서울대 졸업생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존중받는 인간이 되어 갈 때 우리들의 모교인 서울대가 세계 일류의 명문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교에 대한 최상의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대를 무사히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존중받는 인간이 되는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준한 노력으로 그 이치를 실천해 간다면 언제 어디서나 가장 존중받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이로써 저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서울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후배 여러분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연변대학교 총장 박영호